모스크바 턱 밑서 멈춘 용병 쿠데타…러시아 위기 이제 시작

바그너 그룹 무장반란 하루만에 끝나…수장 프리고진 벨라루스로
균열 시작된 푸틴 철옹성…"정부 내 여러 파벌 권력 투쟁 나설 것"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주목…푸틴 굴욕 만회 강력한 공격 가능성

러시아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를 가까스로 해결했으나, 푸틴의 철옹성에 균열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일일천하'가 된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모스크바 턱 밑서 멈춘 용병 쿠데타=무장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 철수를 결정했고, 러시아는 그가 벨라루스로 떠나는 조건으로 그와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4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 기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바그너 그룹을 해체하려고 했고, 우리는 23일 정의의 행진을 시작했다"며 "하루 만에 모스크바에서 거의 200㎞ 내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 러시아인의 피를 흘리는 데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병력을 되돌려 기지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대통령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 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협상했다"며 "양측은 러시아 내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 바그너 그룹 소속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합의가 논의되고 있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러한 합의가 도출된 후 바그너 그룹은 이날 오전부터 점령 중이던 로스토프나노두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AFP가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입건은 취소될 것이다. 그는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바그너 그룹 병사들도 전선에서 그들이 용감히 싸운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프리고진은 투항을 거부하고 모스크바로 진격을 계속했다.

◇균열 시작된 푸틴 철옹성…시계제로=외신에서는 이번 사태를 지켜본 러시아 내부 권력자들이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약해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엘리트들이나 러시아 내 체첸공화국, 타타르공화국 등의 지도자들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번 사태가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음모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독립신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편집자 콘스탄틴 렘추코프는 역시 BBC에 "정부 내 여러 파벌이 권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은 지금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무기가 많다. 모두가 무기를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부 갈등의 폭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반면 푸틴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번 사태로 푸틴 대통령이 전례 없는 굴욕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반란 직후 대국민 연설에 나서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17년 혁명과 뒤이은 내전까지 소환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다짐도 했다.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아 프리고진과 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게다가 협상에 나선 것도 자신이 후원하는 동맹국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으로, 국내 문제를 외국 정상이 나서서 해결해준 모양새가 됐다. 다만 내부 갈등이 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은=무장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으로 인한 러시아의 혼란이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추진력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의 다툼은 우크라이나와 그 지원세력에 좋은 징조로,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선데이타임스는 전망했다. 반면, 무장반란으로 2000년 집권 이후 최대 굴욕을 당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내부 혼란이 유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경 밖에서 새로운 위력 행사로 러시아 내에서 겪은 굴욕을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독일 슈피겔은 내다봤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측면 공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영국군 전 참모총장을 지낸 리처드 대낫 상원의원은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러시아의 무장반란과 관련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리스 2차 총선 집권여당 압승

과반 의석 확보…단독 재집권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25일(현지시간) 실시된 2차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단독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리스 유권자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낸 제 1야당보다 재정 위기에 허덕이던 그리스를 성장의 길로 올려놓은 미초타키스 총리와 여당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AP, AFP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내무부는 개표가 90% 넘게 진행된 결과, 중도 우파 성향의 단독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ND·이하 신민당)이 40.55%를 득표해 17.84%에 그친 최대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2020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차 총선에서는 제1당이 득표율에 따라 최소 20석에서 최대 50석의 보너스 의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민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158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독 재집권에 성공한 신민당의 대표인 미초타키스 총리는 총선 승리 연설에 나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넉넉한 과반 의석을 준 것은 개혁을 추진하라는 명령"이라며 "임금 인상과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견실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민당은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1일 1차 총선 때보다 시리자와의 격차를 벌리며 압승을 거뒀다.

1차 총선에서는 신민당과 시리자가 각각 40.79%, 20.07%를 득표했다. 신민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 의석에 5석이 부족한 146석을 확보했다.

4년에 한 번 총선을 치르는 그리스는 원내 제1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 연정 협상에 돌입하고,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2차 총선을 치른다.

'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초타키스 총리는 다른 정당과의 연정 구성을 거부하고 2차 총선을 추진했다. 2차 총선에서는 제1당이 최대 50석의 보너스 의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당은 계산대로 2차 총선에서도 기세를 이어갔고, 보너스 의석에 힘입어 넉넉하게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미초타키스 총리의 연임도 확실시된다.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로 국가부도 사태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이를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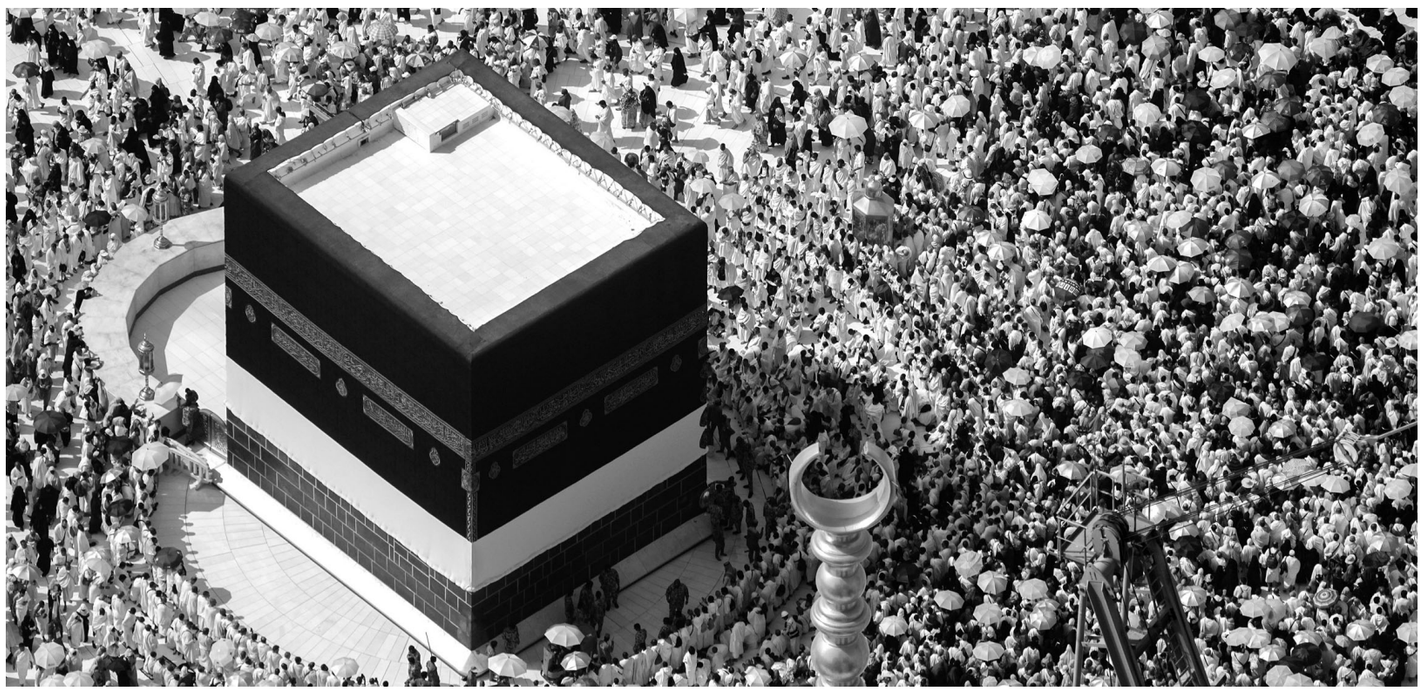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리스 국민들은 2019년 집권 이후 자국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은 미초타키스 총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경제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감세,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같은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했고,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국가 신용등급도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은 2021년 8.4%에 이어 지난해에도 5.9%로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도청 스캔들과 올해 2월의 열차 충돌 참사, 최근에는 난민선 비극 등 현 정권에 부정적인 대형 악재가 잇따랐지만, 선거의 초점이 경제에 맞춰지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합뉴스



사우디 메카 대사원에 모인 무슬림 성지순례객들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인 메카 성지순례(하지)가 시작된 25일(현지시간) 수만 명의 무슬림들이 메카 대사원에 모여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방역 규제 없이 치러지는 이번 성지순례에는 160개 나라에서 온 200만명의 무슬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7개월만에 급락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이달에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20~21일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41%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11%포인트 상승한 44%였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7개월 만이며, 하락 폭은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컸다. 내각 지지율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보다 낮아진 것은 3개월 만이다.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영향으로 상승했던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에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된 문제가 속출하면서 급락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고,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67%에 달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